

내외일보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012면 지역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예산의 효율적 운용 위해 예산심사 심혈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30일간)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10건이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유성 위원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2019년 본 예산 일반회계 3,735억원, 특별회

계 1,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823억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4억 4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울진/전경중 기자
uljrtimes@naewoelbo.com

경북일보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005면 종합

울진군의회, 정례회 마무리...내년도 예산 5823억 의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9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신한울 3, 4호기 약속 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10건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373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238억 원 등 총 5823억 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과 체험장 조성 등 총 8건 14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김형소 기자

영남매일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003면 종합

울진군의회, 내년 예산 5823억원 의결

울진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20일부터 19일까지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

례안 10건이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3,73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823억원을 의결했다.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4억 4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엄용대 기자